

# 순천만정원박람회, 세계적 생태·정원도시 가능성 보여줬다

## 7개월간의 대장정 마무리

관람객 1000만명 육박 '대박'

수익금 333억...130% 목표 초과

10년 만에 다시 열린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세계적인 생태도시·정원도시로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7개월간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재단법인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지난 31일 오후 2023정원박람회 폐막식을 열고, 214일간 장정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폐막식은 정원박람회 개최를 위해 아스팔트 4차선 도로에 잔디를 깔아 만든 6만평(19만8347㎡) 규모 오전그린광장에서 열렸다.

행사장에는 1만여 명의 시민·관람객이 모여 박람회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축하했다.

조직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누적 관람객은 976만9000명으로, 폐장 시각(오후 7시) 이후에는 98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정원박람회는 지난 10월22일 900만 번째 관람객을 맞이했다. 같은 달 7일 목표 관람객 수인 800만 명을 달성한 이후 15일 만이었다.

입장권과 식음료 판매를 통한 직접 수익금은 폐막일 기준 333억원으로, 목표 수익금(253억원)의 130%를 초과 달성했다.

박람회장에 들어선 35개 지역 소상공인의 수익 사업시설 외에도 인근 원도심 음식점들도 재료가 없어 장사를 못할 정도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맨발로 걸으며 지구와 교감하자는 '어싱(Earthing)길'은 순천을 넘어 전국 전역에서 열풍이 불고 있다. 순천 어싱길은 순천만습지, 순천만 국가정원, 오전그린광장 3개 권역 등 8개 구간(12.5km)에 조성됐다.

국가정원을 필두로 한 생태도시의 성공 비결을 배우기 위해 정원박람회를 찾은 기관·단체는 510곳, 자치단체는 200여 곳에 달한다.

순천시는 박람회를 시작하기 이전부터 '미래 먹거리'를 쟁했다.

박람회장에 조성된 예술작품은 애니메이션 제작단지 사업은 2000억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다.

순천시는 정원·자연·역사·문화 등 도시 전체가 창작의 배경이 되는 '생태수도 순천'의 미래 산업으로 애니메이션 산업을 택했다.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을 위해 선도(앵커)기업을 포함한 35개의 제작 기업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애니메이션을 포함해 웹툰, 음악, 영화, 캐릭터 등 문화산업 전 분야로의 산업 확장 전략도 세우고 있다.

순천을 '한국형 디즈니랜드'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문화행사와 스튜디오, 체험관, 관광산업 등과 연계한 계획도 마련했다. 순천시는 올해 말까지 문화콘텐츠산업 연구용역을 통해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등 청사진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원박람회의 여운은 한동안 지속될 예정이다. 조직위는 박람회 폐막 이후 2대산(1~5일)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 습지 전체 구역을 무료 개방한다. 1000만명 가까이 찾은 정원박람회에 대한 개장 연장 문의가 잇따르면서 무료 개방을 결정했다. 이 기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행사장을 운영한다. 역만 숲이 국화 등 가을꽃이 핀 정원의 아름다움을 감상할 수 있다.

박람회 조직위 이사장인 노관규 순천시장은 "박람회 흥행 주역은 시장과 공무원, 28만 순천시민이 이룬 삼합(三合)"이라며 "정원박람회 사후 활용 계획을 잘 세워 남해안 벨트 중심도시인 순천시가 미래 경제의 판을 바꾸는 또 하나의 표준모델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순천=김종은 기자 ejkim@kwangju.co.kr



'물드는 산, 멈춰선 물'을 주제로 한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2개월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31일 폐막했다. 지난 9월 1일 개막한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수목의 확장성과 대중성을 이끌어내며 전국 각지에서 43만 여 명이 다녀가는 성과를 거뒀다. /목포=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폐막...예술축제로 자리매김

'2023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가 두 달 간의 일정을 마무리하고 지난 31일 폐막했다. 이번 비엔날레는 전통 산수화에서 미디어아트까지 다양한 장르의 수목 작품과 함께 체험, 공연 등 풍성한 볼거리를 선보이며 대중과 호흡하는 예술축제로 자리매김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지난 31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지난 9월 1일 개막한 이래 10월까지 43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가는 등 지난 2018년 첫 개최 이

후 역대 최대 규모로 치러졌다.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비엔날레로 그동안 억눌렸던 문화예술·여가에 대한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전시인데다, 전국대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등 전남지역 메가 이벤트와 연계해 펼쳐지면서 초·중·고생, 대학생, 기업인, 가족 단위 관람객, 외국인 유학생, 각종 동호회 단체 등 다양한 관람객의 발길이 이어졌다.

19개국 190여 명의 유명 작가들의 350여점을 선보인 전시는 '수목의 다변화, 자원화, 국제화'를 목

표로 수목의 보편적인 확장성, 대중성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맞췄고 흑백의 기존 틀을 깨고 무거운 작품 전시에서 벗어나 치유와 성찰의 시간을 전하는 작품 등으로 구성되면서 호평과 관심이 이어졌다.

"목표는 향구다"라는 주제로 펼쳐진 '국제제지던 시간'의 경우 15개국 23명 해외 작가의 독창적인 작품들로 구성돼 눈길을 끌었다.

/김지를 기자 dok2000@kwangju.co.kr

## 살아있는 역사교과서, 신문으로 만들어봐

광주일보가 신문을 사랑하고 역사를 바라보는 바른 눈을 갖도록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신문을 활용한 역사신문 만들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광주일보가 주최하고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후원하는 제4회 신문사랑 역사신문 만들기 NIE 공모전은 학생과 교사 등에게 효과적인 신문활용 교육방법을 알리고,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새로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올바른 역사인식과 독창적인 기획을 가진 작품으로, 학생과 교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공모주제: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독창적인 기획이 담긴 신문 4·16 세월호 참사, 4·19혁명, 5·18광주민주화운동, 역사적 인물 등
- 참가자격: 광주 지역 초·중학교 팀(학생 2명 이상+지도교사 1명 이상)
- 출품작 접수: 11월 10일(금요일)까지 접수
- 접수방법: 우편접수 및 방문접수
- 접수처: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금남로 3가 9-2) 광주일보 9층 편집국 역사신문 만들기 NIE 공모전 담당자 앞 (전화문의: 062-220-0680)
- 심사 및 수상작 선정: 대상(1점), 최우수상(2점), 우수상(4점) - 11월 13일(지면발표)

光州日報社

## 강 시장 "무안공항, 거점공항 육성 소신 변함없어"

전남도 '광주 군·민간 공항 동시 이전 약속' 요구에는 답변 유보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31일 "무안 공항을 거점공항으로 키워야 한다는 건 오랜 소신이고 여기에는 아직 변함없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과 차담회에서 "시장이 되기 전 천만평 공항도시를 만들자고 제안했고, 요즘 (이슈인) 의료 인력 관련한 제안을 하기도 했었다"며 "무안 공항이 허브공항으로 빨리 성장하지 않고 청주공항, 새만금공항과 경쟁이 시작되면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 시장은 또 "(광주) 민간공항을 보내 무안공

항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묻는 질문에는 "(필요성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답했다.

강 시장은 다만 광주 민간·군 공항 동시 이전을 바라는 전남도 요구에는 유보적 자세를 보였다.

강 시장은 "2018년(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이) 작성한 민간·군 공항 이전 합의문이 결국 없어졌다(폐기됐다)"며 "그때 교훈을 토대로 같은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고 답변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북동 재개발, 개방적 도시공간 확보돼야

광주시, 사전공공기획...주민들 "금남로변 제외, 융적률 향상" 제안

광주시가 18년 동안 갈등이 반복되고 있는 광주 북동 재개발사업 사전공공기획안의 윤곽을 제시했다. 주민들은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금남로변 사업구역을 제외하고, 요구하면서 융적률을 향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난 31일 광주시에 따르면 강기정 시장은 지난 30일 광주시청 다목적실에서 '북동재개발 바람직한 개발방향'을 주제로 34번째 월요 대화를 열었다. 북동 재개발사업은 2005년 재개발 추진 위원회가 구성된 후 주민 간 이해관계 충돌로 18년 동안 갈등이 이어졌다.

광주시는 노후 원도심 대상 사업 최초로 공공기관이 민간 주도사업의 계획과 절차를 지원하는 사전공공기획 전담팀(TF)을 운영하며 해법을 모색해왔다. 시가 제안한 공공기획안에는 세미나와 주민설명회 등 의견 수렴을 통해 대로변 업무·상업시설 집중으로 도시 거리 활성화, 공공보행도로 개설을 통한 개방적 도시공간 확보와 원도심 활성화 등이 담겼다. 차별화된 스카이라인으로 도시 다양성 연출, 북동성당과 근대건축물 보존, 공공임대사가 조성, 가로경관 특화 등도 제안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

## 못 받은 돈 회수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은 돈 회수 가능해집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수수료 없음**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잔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 공사대금·각서 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해산 및 채권 신고 공고(1차)**

본 회사는 2023년 10월 30일 주주총회의 서면결의에서 해산을 결의하고 현재 청산 절차를 진행 중인 바 본 회사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일  
피스바이오 주식회사  
광주광역시 북구 천만과로 123, 창업진흥센터 비동 501-1호 (오룡동, 광주과학기술원) 청산인 강동욱

**분할합병공고**

2023년 10월 31일 각사의 임시주주총회 결의로 주식회사 새나라종합건설(이하, '갑')의 토목공사업 및 건축공사업 부분을 분할하여 그 분할된 부분을 주식회사 현대솔라텍(이하, '을')과 분할합병(갑)의 토목공사업과 건축공사업 부분의 권리의무를 '을'이 포괄적으로 승계한 후 양사는 존속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이 분할합병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본 공고제출일로부터 1개월 내로 관계회사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주주 제의에서도 동 기간 내에 주권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1월 1일  
"갑" 주식회사 새나라종합건설  
전라남도 목포시 하당남부로 14(삼동) 대표이사 김정  
"을" 주식회사 현대솔라텍  
전라남도 함평군 월리면 빛그린14로 27 대표이사 박수현

**군산시 수송동 7층(상업지구)매매**

840㎡ 바닥628㎡ 대형건물  
의뢰기관4개입주 매디컬빌딩

월 4천만원, 수익률 6.3%

은행 36억5천.보10억

매매가  
86억 (현금39억6천만원)

010-3646-8700(직거래)

**자본감소공고**

본 회사는 2023년 10월 31일 임시주주총회에 갈음한 주주총회의 동의로 자본의 총액 금600,000,000원 을 금230,000,000원 으로 감소하기로 하고 그 방법으로서는 1주의 금액 금10,000원의 주식 60,000주 중 37,000주를 유상 소각하여 발행주식의 총수를 23,000주로 하여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음.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1월 이내에 이의를 제출할 것을 이에 공고함.

2023년 11월 1일  
삼우건설 주식회사(201311-0007806)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해룡로 886-30 대표이사 김성수

kwangju.co.kr  
**光州日報**  
광고신청 및 게재문의  
062.227-9600